

2007 채란산업 결산 및 당면과제

# 개방화 시대에 미리 대비하는 자세를...

**우**리는 올해 초 양계인들의 염원을 담아 2007년 정해년(丁亥年)을 맞이하였다. 지난 과거의 어려움은 잊고 새롭게 시작하려는 채란인들의 의지와 희망으로 밝은 한 해를 기도했지만, 2007년 채란업은 난제로 가득한 한해였다고 보여진다.



정 광 면  
이천채란지부장

이처럼 산란실용계 사육수수 증가로 인해 계란생산량이 증가하면서 체화되는 공급량을 조절하기 위해 대형 할인매장의 덤핑이 여전히 성행하였고 시장 유통상황도 활발하지 못하였다. 지난 2004년 AI 발생 이후 고난가가 1년반 가까이 지속되면서 농가 스스로 생산량을 늘려간 것이 불황의 요인으로

## 한해 평균 저난가 지속

2007년 1월 98원(서울 특란 기준)으로 시작된 난가는 1월 초부터 시작해 상승폭을 보이는 듯 했으나 설명절을 앞두고 예년에 볼 수 없었던 가격하락이 두드러지게 나타나면서 한 해동안의 난가전망을 어렵게 만들었다. 물론 고병원성조류인플루엔자가 2006년에 이어 2년만에 다시 발생하여 금년 초까지 양계업계에 위협을 가하면서 소비위축을 가져오긴 했지만 원천적으로 2006년 12월말 정부통계에서 5,700만수라는 사상 초유의 산란계사육수수는 업계불황을 예고하는 시발점이었다.

작용하였으며, 이로인해 농가들의 부채는 더욱 커져만 갈 수밖에 없던 한 해였다.

한편, 지난 5월 말 KBS 환경스페셜에서 방영된 '산란기계 닭'의 과잉보도와 왜곡방송에 이어 '브랜드란의 허와 실'이란 주제로 양계업계에 부정적인 내용이 방영되면서 우리 채란업은 또 한번 위기를 맞은 바 있다. 소비자들은 냉정하게 계란을 외면했고 생산 농가는 물론 전국의 상인들도 급감하는 계란 소비를 몸소 경험해야 했다.

그런 와중 옥수수 바이오 연료 생산에 따라 지난 3/4분기 이후 국내 사료 가격은 20% 이상 상승하면서 대폭적인 사료값 인상을 가져왔고 앞으로도 사료가격의 인상은 불가피



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으며, 일부 질병으로 인한 생산성 저하로 농가의 부담이 가중되면서 채란인들에게는 냉혹한 한해였다고 생각된다.

### 하루 한알 이상 섭취하는 그 날을 위해

하지만 이런 위기를 발판 삼아 오는 2008년 무자년(戊子年)에는 채란업은 물론 양계산업 전체가 불황에서 벗어날 길을 찾아야 된다. 이를 위한 방법으로는 몇 가지 예를 들어 볼 수 있다.

TV, 라디오 등 각종 방송매체의 홍보가 적극 필요할 것이다. 현재 경기도를 중심으로 각 시군 지부에서는 시식행사 등을 벌여 소비촉진 행사를 진행하고 있다. 보다 확대해 방송매체를 통한 계란의 영양성과 양계산물

을 재료로 한 각종 요리를 선보여 일인당 하루 한 알 이상을 섭취하는 그 날을 기대해 본다.

또한, 안전 생산물에 대한 소비자의 의식이 고조되는 만큼 생산농가 역시 완벽한 제품 생산에 대한 의지와 신념으로 제공자의 역할을 충실히 해야 할 것이다. 지금은 소비 트렌드에 맞춰 축산물을 생산하는 시대이다. 소비자의 알권리가 높아지면서 생산부터 유통 단계까지 직접 확인할 수 있는 계란이력제가 도입되기도 했다. 소비자의 안전의식이 어느 때보다 높아지고 있고, 최근 들어 무항생제 축산물, 유기축산물 등 소비자가 원하는 축산물을 생산하는 농장이 늘어가고 있다. 이를 증명하듯 11월 현재까지 178개의 산란계 농장이 친환경축산물인증을 받은 바 있다.

## 양계인의 의지 한 곳으로 결집하자

2008년 채란업을 안정적으로 이끌어가기 위해서 몇가지 제안을 해보고자 한다.

**첫째, 농민들은 개방화시대 미리 대비하는 자세를 가가져야 한다.**

한·미 FTA협상이 타결되면서 국회 비준동의를 남겨놓은 상태에서 지난 6월부터 한·EU FTA협상이 5차협상까지 진행된 상황이다. 또한 앞으로 진행될 중국, 캐나다, 동남아시아, 남미 등과의 FTA협상 등이 기다리고 있어 축산인의 입지는 점점 좁아질 것으로 여겨진다. 미국과 유럽 등에서는 이미 가공란 등을 국내에 판매하기 위한 시장조사가 이루어지고 있으며, 원란까지도 가격 경쟁력을 앞세워 준비가 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특히, 가까운 중국으로부터 FTA가 타결되면 품질과의 경쟁이 이루어지지 않는 이상 국내 시장의 상당부분을 중국에 빼앗길 수 있다는 예상을 해 볼 수 있다. 정부에서도 폐업보상금 지급, 시설자금 지원 등 다양한 정책을 제시하고 있지만 소와 돼지 분야 정책으로 일관하는 모습을 보이지 말고 양계분야에도 보다 적극적인 관심을 보여야 할 것이며, 생산자들 역시 안전하고 품질 좋은 계란 생산으로 국제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는 대비를 충분히 해나가야 할 것이다.

**둘째, 적정 사육수수를 유지해야 한다.**

금년 평균 산란실용계 사육수수는 약 5,500만수대로 추산되고 있다. 지난해 ‘환우금지 및 산란계 100주령제’ 시행의 여파로 다소 사육수수가 감축되기는 했으나, 현재에

도 적정수수 이상 많은 닭들이 사육되고 있는 것만은 틀림없는 사실이다. 양계농가들이 서로 상생하기 위해서는 경제주령 이상의 사육기간으로 초래되는 계란의 과잉생산, 저품질 계란생산으로 인해 난가 하락 및 큰 폭의 DC가 이루어지지 않도록 적극적인 협조가 이루어지도록 서로 노력해야 할 것이다.

**셋째, 산란계임의자조금에 적극 동참하자**

산란계임의자조금은 우리 양계산업의 발전을 위해 절대적으로 필요한 제도이다. 타 축종에 비해 1992년 가장 먼저 출범하면서 소비홍보사업을 진행한 결과 일인당 208개라는 계란 소비를 달성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선진국에 비해 아직은 미약한 수준이지만, 현재까지 2억 7천만원이 넘는 금액이 거출되면서 작년 한해 1억2천2백만원에 비해 상당한 협조가 이루어지고 있다. 이 금액은 한 해 동안 TV·라디오 광고, 소비촉진행사, 요리강습 및 시식회 등 소비홍보사업과 선진지 연수 등 농가교육 및 정보제공 등으로 쓰여지면서 양계산업 발전을 위한 큰 몫을 해내고 있다. 앞으로 더 많은 농가들의 자조금 참여로 우리 양계산업의 한 줄기 희망의 통로를 만들기 바란다. 또한 표류중에 있는 산란계의무자조금 활성화에서 양계인들의 단결된 힘을 모아 이루어질 수 있도록 2007년도에는 함께 노력해 보자.

마지막으로 양계인은 생산자이자 소비자라는 공동체의식으로 대한민국에서 안전한 건강식품임을 인식하고 소비자에게 확신을 줄 수 있는 양계산물 생산을 할 수 있도록 자긍심과 긍지를 갖기를 바란다. **양계**